

『주홍글자』에 숨겨진 미국의 역사

신 현 옥

I. 서 론

80년대 후반 이래의 새로운 비평경향들 — 예컨대, 신역사주의, 탈구조주의, 여성비평 등 — 은 그동안 미문학의 정전으로 여겨져온 작품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미국의 문학적 상상력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영역을 초월한다는 기존 비평경향들의 암묵적 전제까지도 비판한다.¹⁾ 따라서 이들은 40년대의 라이러널 트릴링(Lionel Trilling)의 주장, 즉 스탈린주의적 이데올로기로부터 미국문학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상상력이 문학의 중심위치에 서야 한다는 주장과 그후의 합의이론(consensus theory)을 비판하는 한편, 미국 예술과 이데올로기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다.²⁾

예컨대, 니나 베임(Nina Baym)은 기존의 문학비평이 여성작가들을 배제해온 양상을 살피면서 ‘뛰어난 문학성’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미국문학의 ‘미국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관성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³⁾ 또한 러셀 라이징(Russell J. Reising)은, 이차대전 뒤의 민족주의 기운에 영향을 받아 미국적인 요소 찾기가 흥기한 결과로 나온 것이 기존의 비평이라고 요약하면서, “베트남 전쟁과 여성 및 소수집단들의 평등을 위한 투쟁이 가져온 미국문화의 변화는 미국의 정전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를 더해주고 있다”고 말한다.⁴⁾

또한 기존 비평경향들에 대한 비판에는 정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수반되는 데 이런 상황이 『주홍글자』(The Scarlet Letter) 비평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예컨대, 제니퍼 플래이쉬너(Jennifer Fleischner)는 『주홍글자』에서 공적 영역인 청교도사회와 사적 영역인 헤스터(Hester)의 삶 간의 갈등과 분리에 주목하면서 이를 호손(Nathaniel Hawthorne: 1804-1864) 당대의 상황과 관련짓는다. 그 당시, 노예제의 도덕성이 끊임없이 문제되었지만 연방이라는 공적 영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예제를 기반으로 하는 남부의 각 주라는 사적 영역의

1) 이 점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소개는 *Boundary 2* Vol. 17, No. 1(1990, 봄)에 실린 D.E. Pease의 “New Americanists: Revisionist Interventions into the Canon” 참조.

2) 트릴링과 반스탈린주의적 문화담론의 관계는 *Boundary 2* Vol. 20, No. 1(1993, 봄)에 실린 Russell J. Reising의 “Lionel Trilling, The Liberal Imagination, and the Emergence of the Cultural Discourse of Anti-Stalinism” 참조.

3) Nina Baym, “Melodramas of Beset Manhood: How Theories of American Fiction Exclude Women Authors”, *The New Feminist Criticism*, ed. Elaine Showalter(N.P.: Virago, 1986), 79면.

4) Reising, *The Unusable Past: Theory and the Study of American Literature*(New York: Methuen, 1986), 20면.

독자성이 보장되어야 했고, 이때문에 공적·사적 영역의 분리라는 암묵적 전제가 지배적이었던 것이다.⁵⁾ 가령, 호손이 「세관」(“The Custom House”)에서 자신이 처한 정치적 상황과 예술과 정치의 적대적 관계를 말하는 부분은 작가가 예술에서 정치를 배제하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 작품이 당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는 한 증거로 본다.

그러나 플라이쉬너의 글은 연방제를 이루어야겠다는 국민적 여망이 ‘공적’으로 확산되면서 남부의 노예제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비판이 ‘사적’인 영역으로 움츠러들었다는 설명 외에 초기 청교도사회에서 벌어진 작품내의 사건이 가지는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작품의 구체적 의미는 우선 잊혀두고 「세관」에만 제한해서 보더라도 「세관」이 공적·사적 영역의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두 영역 간의 갈등을 보여주면서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위 견해는 작품과 당대 지배이데올로기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에 있어서도 미흡하다. 조나산 아락(Jonathan Arac)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화자와 『주홍글자』의 인물들이 공유하는 “공식적인 지위와 완전히 배치되는 열정적인 내적 삶”이라는 특징이 노예제를 둘러싼 호손 당대의 ‘합의적’ 정치상황과 어떤 연관을 지니는가를 살펴보는 아락의 논의는 작품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반면 그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공적인 지위를 잃은 “비유적인(figurative)” 호손과 청교도 사회에서 A자를 달고 사는 “비유적인” 헤스터를, 또 문학인으로서의 “진짜(real)” 호손과 내적인 삶을 사는 “진짜” 헤스터를 연결시키면서, 「세관」으로 인해 『주홍글자』의 자족성에 상처가 나고 그것이 1850년 작가의 상황에 대한 알레고리로 된다고 할 뿐, 청교도 사회내에서 등장인물들이 벌이는 이 일련의 드라마가 가지는 의미를 자세히 따져보지는 않는다.⁶⁾

플라이쉬너와 아락의 경우에서 보듯, 여성, 흑인, 소수민족 등 각 집단들의 발언강화에 힘입은 새로운 이론들이, 많은 경우에 이데올로기와 문학의 관련성만을 강조할 뿐 역사적 현실이 어떻게 예술작품 속에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⁷⁾

먼저 이 글이 『주홍글자』의 형식적 특성과 호손의 로맨스론을 관련지어 거론하되 이 작품에 나타나는 상징성이 어떻게 청교도사회의 됃됨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결합하고 나아가 미국역사 전반에 대한 통찰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세관」에 나타난 당대 현실을 바라보는 호손의 비판적 시각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것이다.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해석은 우선 작품에 나타난 청교도사회의 모습을 살펴본 후, 주요인물 각각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처럼 인물별로 나누어보는 방식을 택한 것은 『주홍글자』가 청교도사회에 대한 구체적 묘사에 바탕하고 있으면서도 작품의 상당부분이 작중 인물의 내면탐구에 할애되어 있고, 이렇게 사회내의 관계들보다는 개인의 고립된 영역이 더 강조되는 것이 곧 청교도사회에서 일어난 주요한 변화와도 상응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끝으로 작가의 의도가 많이 개입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작품의 표면적 의미와 작가의 의도를 넘어서서 작품의 예술언어가 만들어내는 그 심층적 의미 간의 차이, 또는 긴장을 살펴보며 결

5) Jennifer Fleischner, “Hawthorne and the Politics of Slavery”, *Studies in the Novel* 23(1991, 봄), 101-2면.

6) Jonathan Arac, “The Politics of *The Scarlet Letter*”, *Ideology and Classic American Literature*(Cambridge: Cambridge UP, 1986), 252면.

7) 여기에 대해서는 한기욱, “『주홍글자』와 미국문학의 특성”, 『창작과비평』(1992, 봄), 137면. 그 밖에 이 글의 미국문학특성론에 대한 비판적 소개 참조.

론을 맺고자 한다.

Ⅱ. 호손의 로맨스론과 「세관」의 현실비판의식

『주홍글자』에 대해 여러 비평들이 난립한 데는 작품의 배경인 초기 청교도사회나 헤스터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모호한 탓도 있다. 그래서 청교주의는 단지 예술적, 문화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었을 뿐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청교주의와 원죄(Original Sin)에 대한 호손의 태도를 정확히 규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만큼 그의 태도가 긍정이나, 아니면 부정이나 식의 일면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작품의 이해에 큰 도움이 안된다. 사실, 「세관」에서도 어느정도 드러나지만 호손의 '원죄의식'은 종교보다는 오히려 자기 선조들의 역사와 관련하여 볼 필요도 있는 것이다.⁸⁾

비평들의 대립상황은 『주홍글자』의 상징성 내지 알레고리적 특성을 해석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로맨스가 현실성의 조건들로부터 자유롭다는 바로 그것(the very freedom of romance from the conditions of actuality)”이 미국문학의 미국성이요 독창성이라고 보는 리처드 체이스(Richard Chase)의 입장⁹⁾이 있는가 하면, 청교도사회 자체가 알레고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 바로 그 알레고리적 특성으로 인해 오히려 『주홍글자』의 '사실성'이 강화되었다는 이보 윈터스(Yvor Winters)의 주장¹⁰⁾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상반된 관점들도 대개 헤스터와 A자가 '간음, 천사, 유능함, 아담(Adam), 알파, 미국' 등¹¹⁾ 다양한 지시대상 중에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또는 꿈, 피기스러움, 심리적 환상 등이 어떤 알레고리적 효과를 내는가에 초점을 둘 뿐, 작품에서 그것들이 표현되는 구체적 맥락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상징적·알레고리적 특성과 사실성 가운데 어느 한 쪽을 강조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도덕적 이분법만큼이나 작품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전자의 강조만으로는 『주홍글자』가 담고 있는 초기 청교도사회의 뒤편에 대한 사실적 묘사를 해명하기 힘든 한편, 좁은 의미의 사실적 적합성만으로는 설명 안되는 세부적 묘사들도 적지 않다. 게다가 둘 중의 어느 쪽이나에 정신을 쏟다보면 작가의 의도가 무엇이든 작품의 예술언어 전체가 환기해주는 깊은 역사적 통찰을 간과할 우려도 있다. 그 두가지가 작가가 예술가임으로 해서 나오는 진정한 예술언어의 힘속에서 어떻게 결합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8) 초기비평들의 도덕적 찬반경향에 대해서는 *New Essays on The Scarlet Letter*(Cambridge : Cambridge UP, 1985)의 편집자인 M.J. Colacurcio가 이 책의 서론으로 쓴 “The Spirit and the Sign” 참조(특히 8-9면).

9) Richard Chase, *The American Novel and Its Tradition*(New York: Doubleday, 1957) Introduction X. Chase는 칠링워스를 탐구하는 지성, 덤즈데일을 도덕적 감성, 헤스터를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인간현실, 필을 무의식적이고 악마적인 시적 능력으로 설명하는데, 이들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79면 참조.

10) Yvor Winters, “Maule’s Curse, or Hawthorne and the Problem of Allegory,” *Hawthorn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A.N. Kaul(New Jersey: Prentice-Hall, 1966), 17면.

11) Baym에 의하면, 『주홍글자』의 세계가 글자들의 고정된 의미가 없는 세계여서 A자 역시 다양한 의미층을 형성한다. *The Scarlet Letter: A Reading*(Boston: Twayne, 1986), 87-9면.

사실, 익히 알려진 예컨대 『칠박공의 집』(*The House of the Seven Gables*)의 서론에서 피력된 것과 같은 호손의 로맨스론에서도 그가 소설과 로맨스를 구별하고 후자를 선택하는 것을 사실성의 포기과 무분별한 환상의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그의 로맨스론이 오랜 소설전통이 있어온 유럽과는 달리 소설 자체가 허구에 불과하다고 보는 당대 상황 속에서 나온 다소 ‘공격적인’ 발언이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괴이함’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말도 인간의 삶의 진실을 충실히 그려내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말해, 호손은 로맨스 작가로서의 자유가 실제적 삶의 내용물을 압도해서는 안되고 예술의 법칙과 인간심성의 진리에 기반해야 한다며 자신의 소설의 입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주홍글자』에 대해 ‘사실성의 부족’과 ‘환상적 요인의 남용’이라고 불평을 털어 놓은 헨리 제임스(Henry James)조차도 이 소설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나 ‘역사적’이라고 평한 것¹²⁾을 보더라도 호손의 로맨스론이 단선적으로 그의 작품에 적용될 수 없음이 드러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호손이 현실과는 무관하게 과거로 도피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법한 「세관」의 다음과 같은 대목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의 물질성이 그렇듯 나를 강요하며 몰아대는 상황에서, 다른 시대로 내 자신을 던지려고 노력하거나, 만져서는 알 수 없는 내 비누방울의 아름다움이 실제적인 상황과의 거친 접촉에 의해 매순간 깨어지는 마당에 환상적인 소재에서 세상과 비슷한 어떤 것을 창조하겠다고 나선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더 현명한 노력은 오늘날의 불투명한 현실에 사고와 상상력을 확산시켜 그것을 밝고 투명한 것으로 만들면서 것처럼 무겁게 누르기 시작한 짐에 정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또한 내가 알고 있던 사소하고 지루한 일들과 일상의 인물들에 숨겨져 있을 진실하고 파괴할 수 없는 가치를 결연히 찾는 일이었을 것이다. 잘못은 나에게 있었다. 당시 내 앞에 펼쳐진 삶의 페이지가 진부하고 혼하게 보인 것은 그 깊은 의미를 간파하지 못해서였다.¹³⁾

이 대목을 얼핏보면 호손이 불투명하고 무겁게 짓누르는 현실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해 다른 시대로 관심을 돌린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반성하는 듯하지만, 가령 “일상생활의 물질성이 그렇듯 나를 강요하며 몰아대는 상황”, “사소하고 지루한 일들과 일상의 인물들”, “진부하고 혼하게 보인” “내앞에 펼쳐진 삶의 페이지” 등의 표현들을 가만히 뜯어보면 그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찌보면 교묘하다할 이런 호손의 태도는 호손 당대에도 주목되었다. 예컨대, 허먼 멜빌(Herman Melville)은 “호손의 작품은 피상적으로 대충 읽는 이들을 속이기 위해 — 터무니없이 속이기 위해 —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며 근래에는 마이클 벨(Michael D. Bell) 같은 이가 일종의 가면을 쓴 “피상적인(superficial)” 호손에 반쯤 가려진 또 다른 호손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벨에 따르면, 호손은 로맨스라는 장르를 내세워 상상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 사이에 어떤 중립지대를 설정하는 한편, A자가 새겨진 주홍형접의 습득경로며 A자에 얽힌 이야기의 사실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상상력에 적대적인 당대의 시선을 피해간다. 그와 동시에 호손이 이성, 사실, “실제적인(real)” 사업 등, 실증적 사실들에 기반한 사회의 기본

12) Henry James, *Hawthorne*(New York: Doubleday, 1958), 110-1면.

13) Nathaniel Hawthorne, *The Scarlet Letter*(New York: Norton, 1988), 29면. 앞으로는 이 책을 기본텍스트로 하고 인용은 면 수만 본문에 부기하겠음.

적 규범들에 효과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⁴⁾

따라서 그와 같은 교묘한 '위장(disguise)' 뒤에는 미국사회에 대한 작가의 역사적 통찰이 자리한다고 볼 수 있다. 세관을 의미하는 "custom"이라는 말이 관습 또는 습관을 의미함도 생각해 볼 만하다.¹⁵⁾ 여기에서 호손의 비판은 세관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고 정권교체에 따라 자신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일에 그 개인이 통제당하고 희생되는 정치적 상황에도 해당되며 나아가 공화국 전반에 대해서까지 확대된다. 한 개인이 공직을 얻어 공화국의 강력한 팔에 기댈 때 그 자신의 고유한 힘은 상실되고 말며, "그의 타고난 힘이 유난히 좋든지 그 고장의 힘 빼는 마술이 너무 오래 그에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모르되, 대개는 악마의 봉급을 받으며 자리를 지키다 피폐해지고 만다"(30)는 것이다. 이렇듯, 호손의 적대감은 그 어느 모로 보나 공동체적 유대가 끊어져 "인류의 단결된 노력"(30)의 일부를 이루지 못하는 세관의 현실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호손의 로맨스론에서 단지 무엇을 가리거나 감추기만 하는 교묘한 '위장' 이상의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다시말해, 로맨스론에서 주장되는 바의 알레고리적·상징적 특성의 강화에는 사실주의적이고 충실한 묘사만으로는 위와 같은 미국사회와 인간의 진실한 면모를 드러내는 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호손 작품의 이러한 특징이 단순히 형식상의 특이함만이 아니라는 것은 Q. D. 리비스(Leavis)의 주장이기도 하다. 요컨대 그녀는 미국 역사 자체의 결점들 — 예를 들어 트웨인(M. Twain)에게는 노예제도, 쿠퍼(F. Cooper)에게는 순결한 미국(Virgin America)과 원주민(Red Skin)의 파멸 등 — 과 예술가를 인정치 않는 사회적 상황 등으로 인해 미국의 소설가들이 영국의 초기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설을 쓸 수 밖에 없었음에 주목한다.¹⁶⁾ 따라서 호손 작품의 상징성의 강화나 로맨스적 특징은 그가 '불투명하고 무겁게 짓누르는 현실'이라 표현한, 바로 그 역사적 현실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예술이나 여타의 상상력의 산물에 대한 당대의 적대적인 시선에 기인한 작가의 교묘한 '위장'이 로맨스적 특성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 외에 당대사회에 대한 작가의 더 적극적인 판단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초기 청교도사회에 대한 호손의 관심이 '엄증나는 현재'와 무관한

14) Michael Davitt Bell, "Art of Deception", *New Essays on The Scarlet Letter*, 29-56면. 특히 Bell이 D.H. Lawrence의 견해를 수용하여 "진정한 문제로부터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위해 의도되었다(30면)"는 의미에서 "The Scarlet Herring"을 자기 글의 제목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은 흥미롭다. 또, 그는 소설에 대한 Thomas Jefferson의 악의에 찬 언급을 인용한 뒤, 호손 당대인 19세기의 관습적 견해가 상상력에 대해 적대적이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관습적인 견해에 따르면 로맨스는 건전한 이성이나 판단보다는 오히려 병든 상상력의 소산이었다. 로맨스의 망상에 빠지는 것은 심리적·사회적 질서의 기반을 허무는 것이며 스스로를 삶의 실제적 사업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37면: 그의 글의 후주 13 참조)

15) Charles Swann이 "'custom'이라는 말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면서 호손은 습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진정한 현실인식이 기반해야하는 역사적 상상력을 파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 것도 이런 점과 연관된다. *Nathaniel Hawthorne: Tradition and Revolution*(Cambridge: Cambridge UP, 1991), 77면.

16) Q. D. Leavis, "Hawthorne as Poet," *Collected Essays: The American Novel and Reflections on the European Novel*, ed. G. Singh(Cambridge: Cambridge UP, 1985), 16면.

‘이상적인 과거’로 향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Q.D. 리비스도 지적하듯이, 그의 상상력은 당대 현실과 무관한 낭만적 과거를 재창조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비판을 애초부터 염두에 둔 것이었다.¹⁷⁾ 또 그에게는 그 과거가 이상화의 대상이 될 정도로 편한 것이 아니었다. 호손은 선조들의 수치스런 행적으로 인한 저주를 풀기를 염원하며, 선조들의 행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 터와 자신이 맺는 관계를 ‘사랑’도 아니요 굴(oyster)처럼 끈질긴 ‘본능’이라고 표현한 뒤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지만 바로 이런 감정이야말로 이제 그 관계가 불건강한 것이 되었으니 마침내 끊겨야 한다는 증거이다. 인간의 본성은, 감자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오랜 세대를 걸쳐 심고 또 심어 지력(地力)이 떨어진 그 똑같은 땅에서는 변성할 수가 없다.(10)

이런 비판정신이 스며있는 『주홍글자』는 당대의 미국의 현실이 언제부터 참다운 삶의 과정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를 탐구하며 이 점에서 건국기 과거에 대한 호손의 관심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이 글은 『주홍글자』를 읽기에 앞서 문학과 현실의 연관성에 대한 호손 나름의 독특한 인식의 결과인 로맨스론을 살펴보면서 사실성과 상징성 내지 알레고리적 특성을 대립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에 거리를 두었다. 또 「세관」에 드러난 당대현실에 대한 호손의 비판적 인식과 연관지어서 그의 작품의 형식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음의 작품론에서도, 일견 혼돈스럽다 싶을 정도로 해석의 여지가 무한정 열려있는 듯한 상징이나 알레고리 사실은 구체적 현실묘사를 바탕으로 하여 어지러이 널린 해석의 여지를 정돈하며 바로 그 구체적 삶의 묘사에 더 깊은 역사적 의미를 더해주고 있음에 유의하며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사랑 이야기’ 안의 ‘파괴 이야기’

청교도 사회

막이 열리듯 감옥문이 열리면서 『주홍글자』는 시작된다. 처음부터 청교도사회는 유토피아로서가 아니라 묘지나 감옥으로 상징되는 식민지로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이러한 시작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어두운 이미지가 작품을 지배하게 되나 작품이 이런 막연한 분위기로만 일관하는 것은 아니다. 신대륙의 풍토를 고려하면서도 영국의 귀족저택을 본떠 지은 벨링햄(Bellingham)지사의 저택의 모습이나, 영국에서 건너와 영국식 복장으로 봉사했으며 계약기간 동안은 재산품목과도 다를 바 없는 계약노예(indentured servant)¹⁸⁾였던 하인들의 상황, 또 선거일장면의 묘사 등의 몇몇 예들도 보여주듯, 초기 청교도사회의 뒤틀림이나 그 상류계급의 삶의 면면에 대한 묘사가 작품 전반에 자리한다.

한편, 어두운 이미지가 드리운다고 해서 이 청교도사회가 비판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강건함과 자존을 지녔으며 어렵고 위험한 때에는 사나운 파도에 맞선 벼랑처럼 나라의 보위를 위해 일어서다”(161)는 말에서도 알 수 있지만, 청교도들의 종교적 엄격함은 이 사

17) Q.D. Leavis, 35-6면.

18) Leo Huberman, *We, the People*(New York : Monthly Review, 1970), 38면. 이들 계약노예는 흑인노예보다는 나았으나 백인들 중에서는 최하위로 오늘날의 가난한 백인들(poor whites)의 선조적이라고 설명한다.

회의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며 그 나름의 미덕을 갖춘 것이다. 또 사회 전체의 엄격함도 지배 계급으로부터의 일방적인 통제와 지시에 의해 강요되는 것만은 아니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켜진다. 물론 지도급 인사들일수록 엄격함에 대한 내적·외적 요구가 컸겠지만, 대다수의 성원들도 이런 엄격한 규율에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따르고, 헤스터의 죄과로 죽음이 내려졌다해도 그 가혹한 형벌을 불평없이 받아들일지언정 그 죄를 단순한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비정함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 엄격함이 어두운 이미지와 관련된 적극적인 의미라면 그 이미지 자체는 무엇이 가려져 있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증거하기도 한다.

사실, 여기에는 엘리자베스 시절이나 제임스 시절의 영국에서라면 민중의 흥겨움이 그렇게나 손쉽게 찾았을 법한 여흥거리들은 없었다. 미숙하나마 연극적인 특색을 띤 구경거리도 없었고, 하프를 들고 전설적인 민요를 읊는 시인도, 음악에 맞춰 춤추는 원숭이를 데리고 다니는 음유시인도, 마법을 흉내내는 재주를 가진 요술장수도 없었으며, 아마도 수백년은 되었을 것이나 유쾌한 공감이라는 바로 그 가장 넓은 원천에 호소함으로써 여전히 효력이 있는 농담들로 군중들의 흥을 돋구는 메리 앤드류같은 이도 없었다. 그러한 여러 부류의 익살꾼들이 모두 있었어도 그들은 비단 엄격한 규율의 범람만이 아니고 법에 구속력을 주는 전체적인 정서에 의해 준엄히 억제되었을 것이다. (156)

이렇듯, 민중전통의 억압과 자발적 복종은, 한편으로는 먼 외지로 이주함으로써 얻어진 종교적 자유와 '새로운 낙원'의 건설이라는 이상이 구대륙에서 행해지던 축제와 같은 '무책임한 방종함'에 의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그들 나름의 절박한 처지에서도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주홍글자』의 시간적 배경인 1642년부터 1649년 무렵의 시기에 영국에서는 청교도들의 성장 및 그들과 찰스 1세의 갈등심화, 청교도 탄압강화, 그로인한 청교도혁명과 찰스 1세의 처형으로 이어지는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호손의 단편작품인 「엔디코트와 레드크로스」("Endicott and the Red Cross")의 구절처럼, "선조들은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자신들의 어린 나라가 투쟁없이 무너져서는 안된다는 결의에 차 있던" 19) 때로 식민지 내에 한층 더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위의 인용에서 보듯, 이러한 상황에서 사라져가는 민중전통과 그것을 통해 표현되어 왔던 민중의 활력이 상실되고 있음을 작가는 주목한다. 신대륙 이주를 계기로 이들이 품었을 이상과 막상 이주한 후에 처하게 된 냉혹한 현실, 그 둘간의 커다란 간극에서 오는 좌절감이 한층 더 강력한 규범들을 동원하여 신대륙의 이상실현이라는 목표로 모든 구성원들을 다그쳤을 것이다. 이런 이상주의적 경향은 물론 청교도 가치관에 따른 정치적 규제와 힘의 행사자인 '시민'(citizen)²⁰⁾이라는 계급, 그중에서도 목사들에게 일차적으로 해당하는 것이고, 그런 만큼 이 계급이 그 최대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존재하는 셈이다. 실로 이런 점은 잠시후에 살펴볼 딘즈데일의 경우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지만 그 사회의 규범이 단지 지배계급만의 소유

19) Nathaniel Hawthorne, *Nathaniel Hawthorne's Tales*, ed., James McIntosh (New York: Norton, 1987), 113면.

20) Perry Miller, *Errand into the Wilderness* (Cambridge: Harvard UP, 1956), 150-2면. 밀러는 청교도 사회에서 '시민(citizen)'과 '거주민(inhabitant)'들이 일종의 사회계약의 형태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나 참정권 등의 정치적 힘은 오로지 '시민(citizen)'들에 국한되었다고 한다. 이 책의 5장 "청교도 국가와 청교도 사회" 참조.

물은 아닌만큼 이는 청교도사회 전반의 문제점인 것이다.

딤즈데일과 헤스터

헤스터와 딤즈데일의 사랑은 우선 청교도사회의 억압성에 대한 반발이면서 그것을 '죄'로 규정하려는 사회와 맞서 자신들의 '성스러움'을 지키려는 내적·외적인 투쟁이기도 하다. 헤스터가 지은 '죄'의 상대가 누가 보기에든 진실한 청교도 목사인 딤즈데일이라는 사실은, 청교도 사회의 핵심부에서도 그 가치관에 대한 저항과 반발이 일고 있으며, 동시에 청교도 사회의 이상 자체가 더 이상 그 사회를 통제하지 못하고 허위로 변해감을 의미한다. 딤즈데일은 前代의 목사들과는 전혀 다른 점이 있다.

뛰어난 재능을 타고 났으며 학자다운 조예가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목사에게는 뭐랄까, 근심서리고 놀란, 그런가하면 반쯤은 두려움에 찬 표정같은 것이 엿보였다. 마치 인생살이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어쩔 줄 모르는 까닭에 자신만의 공간으로 격리되어서야 비로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처럼. (48)

또한, 그는 청교도사회의 종교적 신념이 아닌 '지성이라는 또다른 종류의 수단' (85)을 통해 세상을 보면서 기쁨과 위안을 얻기도 하며, 다른 목사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적인 교양과 사상의 자유를 지닌 칠링워스에게 매력을 느끼고 남다른 유대감을 갖기도 하는 등의 특이한 성향을 보이는데 (85), 이는 그가 영국의 명문대 출신 젊은이로서 유럽의 지적 자유주의의 기운을 어느정도 맛보았을 것이라는 점과도 관련된다. 이런 딤즈데일은 마치 금지된 즐거움을 누리듯, 자신의 세계 바깥의 더 자유롭고 신선한 대기를 맛보고자 했다. 그에게 헤스터와의 사랑은 자·타의로 금지된 어떤 은밀하고도 신선한 즐거움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작가도 딤즈데일에 대해 강철같은 종교적 신념이 감금하듯 에워싸고 받쳐주어야만 평온을 느끼는 "진정한 목사"라고 아이러니칼하게 묘사하듯이, 그는 자유로운 공기를 맛보다가 다시 자신의 삶이 소진되는 교회가 정한 한계로 되돌아가고 만다. 즉, 그는 헤스터와의 사랑을 '죄'로 여기며 그 죄의식으로 인해 자기파괴의 길로 접어든다. 그 '죄'를 계기로 그간 억압되어온 그 나름의 참다운 본성을 회복하면서 새 삶의 가능성을 여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를 확대하고 정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길로 나간다.

딤즈데일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첫 교수대장면에서부터 드러난다. 헤스터에게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털어놓으라고 다그치는 이 대목의 아이러니는, 그후 설교 때마다 자신의 죄를 그 나름으로는 애써 털어놓으면서, 한편으로 그 죄를 죄의식 일반으로 극화함으로써 청교도목사의 직분에 걸맞는 공적인 역할도 뛰어나게 수행하는 것에서도 보인다. 벨의 말대로 가히 "이중적 언사의 대가(master of doublespeak)"라고 할 수 있는데²¹⁾ 그렇다고 일순간이나마 그에게 위안이 온 것은 아니고 거짓 설교로 단지 하나의 죄가 더 늘고 수치심만이 깊어질 뿐이었다. 대중과 자신에 대한 기만이 점차 정도를 더해가면서 당자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비참한 자신을 죽도록 중요하게 되고 끝방에 자기를 가두고 피가 나도록 매질을 하는가하면 밤새워 참회하는 날이 이어지면서 헛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진실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온 우주가 거짓이다. 그것은 만져지지도 않고 움켜쥐면 사그라들어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자신을 거짓 빛에 비추어 보는 한, 그 자신은 그림자가 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된

21) Bell은 이런 딤즈데일이 끝내 자기기만으로 일관한다고 한다. 47-9면.

다.(100)

이렇듯 그는 모든 인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나아가 우주 자체가 허위로 변해버리는 상황, 다시말해 세계와의 온전한 관계맺음이 좌절되는 상황에 처한다. 나중에 “가슴이 너무도 쓰리고 괴로운 가운데, 내 곁과 안이 이렇게 다른 것을 자조해왔소!(130)”라는 탄식에서도 드러나듯, 그는 이런 자기분열상태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인식한다.

하지만 함께 도망하자는 헤스터의 제의에 응하여 떠나기로 작정한 마당에 도망칠 배의 출항일이 선거일 다음날임을 알고 “아주 다행”으로 느끼는 것이나 선거일설교를 놓고 집착하며 명예욕까지 드러내는 대목에 이르면 이것이 과연 “결모습”뿐이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그런 일(선거일설교를 맡는 일)은 뉴잉글랜드목사의 생애에서 명예롭고도 획기적인 순간이었으므로, 그가 자신의 직업경력을 끝맺는 데에 있어 이보다 더 알맞은 격식과 시기를 잡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적어도 이런 평은 들으리”, “내가 공적인 의무를 방기하거나 엉망으로 행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이렇게 이 모범적인 양반은 생각했다. 이 가련한 목사가 갖춘 것처럼 그렇게나 심오하고 날카로운 자기성찰이 이다지도 비참하게 기만당하더니 참으로 슬프도다!(146)

이어지는 화자의 다음 언급은 정곡을 찌른다.

누구든 상당한 기간 동안 하나의 얼굴을 스스로에게 보이고 또 다른 얼굴을 대중들에게 보인다면, 중국에는 어느 것이 진실한 것인지 몰라서 당황하게 마련이다.(146)

딤즈데일의 자기기만은 마지막 교수대 장면에서 극에 달한다. 마지막 설교가 끝난 뒤 이루어진 자신의 고백에 군중들이 놀라서 바라보자 그는 의기양양한 승리감을 느낀다. (“the minister stood with a flush of triumph in his face.” 172)

딤즈데일에게 고백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우선 7년을 두고 죄의식으로 남몰래 괴로움을 당하며 그 은밀한 죄의식과 고통이 바로 그의 정체성이 될 정도였기에 고백은 일시에 그것들을 극복하려는 힘겨운 결단의 소산이라 볼 수 있다. 이 고백을 통해 딤즈데일은 헤스터의 도망제의와 죄의식을 미끼로 옥죄어 오던 칠링워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면서 그들과의 은밀하고도 엄청난 싸움에서 각기 어느정도의 승리를 거둔다. 이것이 그가 느끼는 ‘승리감’의 한 면이며 이 때문에 그의 죄의 고백은 ‘자기예찬’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딤즈데일 자신으로 보자면 고백과 죽음의 그를 진실됨의 길로 이끌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백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온 우주가 허위로 변하고 딤즈데일 자신도 그림자처럼 되어버리는 상황에서 그에게 유일하게 실재감을 주어진 헤스터와의 관계마저 전적으로 부정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헤스터의 도망제의에 동의한 것 때문에 딤즈데일의 도덕적 양심은 한층 더 큰 혼란을 겪는데 그 도덕적 양심의 통제에서 벗어난 자신의 부분을 모든 정신적 힘을 기울여 억압한 마지막 마무리가 바로 그의 고백과 죽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승리의 순간은 육체의 완전한 소진과 정신의 승리로 귀결되는 자기기만의 완성이요 자학의 절정이었을 따름이다. 이 고백의 순간은 청교도목사로서의 그의 삶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요 자기예찬의 순간이지만 동시에 헤스터의 ‘악마성’을 고백하는 순간이기도 하다.²²⁾ 헤스터는 그녀가 펄(Pearl)에게 하는 말처럼 일생에 단 한번 악마의 꾀임에 빠져 간음

22) Stuart Hutchinson, *The American Scene*(Hong Kong: Macmillan, 1991), 55면 참조.

죄를 저지른 여인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다른 누구도 아닌 신실한 목사를 죄의 수렁에 빠지게 한, 그야말로 악마의 지위로 승격되는 셈이다.

한편, 딘즈데일과 칠링워스가 그 특유의 반생명주의로 끝내 제명대로 못 살고 삶을 마감한 것과 달리 헤스터가 '죄'의 발단부터 그 훗날까지 살아남아 그 기록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은, 그녀가 이 두 인물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녀는 영국의 몰락한 양반가문 태생인데 몰락한 가세 덕분에 오히려 자유롭게 어린 시절을 보내며 성장했다. 그 후 그녀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학자요 과학자, 의사인 칠링워스와 시작한 대륙에서의 새 삶은 "무너져가는 벽에 긴 이끼"(43) 같았을 뿐 그녀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는 삶이었으며, 다시 대서양을 건너 시작한 청교도사회에서의 엄격한 생활이, 칠링워스의 생사불명으로 어찌보면 '자유로운' 처지에 있던 그녀로서는, 더 억압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말하자면, 헤스터는 결혼에서부터 '죄'를 짓기 이전까지 자신의 본성과는 어긋나는 삶을 살아야 했다. 이렇게 소녀 시절 이후 쌓여온 내재적 불만이 '죄'로 분출된 것이다.

첫 교수대 장면에서부터 헤스터는 청교도사회의 어두움에 대비되어 성모를 연상시키며 "그녀의 본성이 풍부하고 관능적이며 동양적인 특징을 지닌"(59)다고 묘사되는데 그녀의 이같은 자질들은 칠링워스나 청교도사회의 억압과 상충한다. 이렇게 보면 마치 감옥 옆의 장미처럼 사랑을 피워낸 밝은 이미지의 헤스터와 감옥과 죽음의 어두운 이미지를 드리운 청교도사회가 강렬한 시각적 대조를 이루는 셈이다. 흥미롭게도, '밝음'이 구대륙적 요소들에, '어두움'이 신대륙적 요소들에 연관되어 있다. 초기 청교도사회가 자리를 잡으면서 영국적인 전통이 '허영'이나 '방종'으로 간주되어 억압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밖의 청교도사회의 암울한 분위기에서 확인되듯, 오히려 『주홍글자』의 전체적인 색조는 '어두움'에 가까우며, 이것이 사실 당대의 역사적 색깔에 근접하는 것이다. 이 어두운 색깔을 배경으로 헤스터가 찬란한 빛을 뿜는 듯하다.

그런데 작품의 첫 부분을 자세히 보면, 작가는 헤스터와 필이 '성스러운 모성'과 '세상의 구원'을 상기시킬런지도 모른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단지 대조에 의해서"라고 지적한 뒤, 여인의 아름다움 때문에 세상이 더 어두웠고 그녀의 아이 때문에 세상이 더 당혹스러웠다고 한다. 헤스터와 필을 세상에서 분리시키되, 개인과 사회의 대립구도 속에서 개인을 옹호하는 식의 편한 대조를 허용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밝음'의 분위기에 해당하는 헤스터의 자질이 최고조에 이르는 듯한 숲속의 장면도 이런 상황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그냥 '밝음'으로만 느껴지지는 않는다. 물론 대개는 마녀나 악마 등 사악한 존재들이 출몰하는 장소로 여겨진 청교도사회의 숲을 밝은 이미지를 먼 자연으로 묘사한 것부터가 청교도 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비판을 담고 있기는 하다.²³⁾ 또, 헤

23) 변경과 연관된 숲의 문학적 의미는 미국문학연구자들에게 적잖이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숲은 악마의 뒷에 걸린 원주민이 출몰하는 위험지대, 집착과 죄의식, 역사와 미래에 대한 절망의 상징, 신의 정원으로 개종시켜야 할 죄 많은 땅등의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거나(Peter R. Carroll, *Puritanism and the Wilderness*(New York: Columbia UP, 1969), 11면 및 62면 참조) 도피 — 구애, 결혼, 육아 등으로부터의 — 의 주제와 관련하여 미숙한 성(sexuality)의 상징(L. Fiedler, *Love and Death in the American Novel*(New York: Stein, 1966), 25면 참조)이라든지 미국이 초기 정착기 역사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죽은 원주민의 혼령이 떠도는 지역(D.H. Lawrence, "The Spirit of Place", *Studies in Classic American Literature* 참조)으로 보기도 한다. 로렌스는 숲과 황야에서도 미국 초기 역사의 과오와 그로 인한 백인정신의 와해 — 나아가 그 와해 이후 새로운 의식의 형성까지를 포함한 — 가 벌어진다고 한다. 그 밖에 미국역사에 있

스터가 7년여의 고난을 겪고 이제 만만치 않은 힘으로 칠링워스와 맞서는 것이나, 자신이 행한 일이 “신성함(consecration)” (133)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또 덤즈데일이 영락해가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는 일 모두가 숲에서 일어난다. 무엇보다도 청교도사회에 묶여 살았던 자신들의 과거를 거부하는 결단이 이루어지고 그 결단을 확인하듯 헤스터가 A자를 떼어내며 활력있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특히, 헤스터의 얼굴에 “여성다움의 바로 그 심장에서 솟아난 듯한” “빛나는 부드러운 미소”가 퍼지고 창백하던 뺨에 홍조가 깃든다는 대목과 그 때의 자연 묘사는 이를 데 없이 밝다(138).

이런 대목들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헤스터의 인간적 가치, 또는 예술가적이고 성적인 에너지가 심분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숲속의 장면에서 “주홍글자라는 통행증을 가지고 청교도사회와는 다른 세계로 건너가서 발휘하는”(136) 헤스터의 모습이 청교도사회의 이상을 대변하는 목사 덤즈데일에게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 분명히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헤스터의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도록 의도된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런 묘사 앞에 주홍글자에서 비롯된 수치, 절망, 고독 등은 그녀가 더 자유롭고 더 강해지도록 한 선생적인 셈이지만 아주 빛나게 가르쳤다는 작가의 지적(136)을 단순히 지나쳐서도 안되지만, 작품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에도 헤스터의 이런 밝은 모습은 펄 때문에 곧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게 되며 덤즈데일에게 있어서도 이 순간은 그가 ‘미치기’ 직전의 상황임으로 해서 기이한 색채를 띤다. 그러므로 우리가 헤스터를 평가할 때, 많은 평자들이 그러하듯, 그녀를 청교도사회의 어두움에 대조되는 밝음으로만 보아 청교도 사회가 억압하는 인간의 순수한 정열 또는 인간적 가치의 대변자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실제로 그 사랑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헤스터 또한 덤즈데일이나 칠링워스와 동시대의 인물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예컨대, 처음의 교수대 장면에서 헤스터가 자기 앞에 펼쳐진 광경을 “일종의 끔찍한 승리”(55)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부분에서는 덤즈데일이 선거일의 고백후 “승리감”(172)을 느끼는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과 흡사한 어떤 의지나 집착의 증상이 보인다. 그녀는 뉴잉글랜드에 남겠다고 결심하는 동기중의 하나가 덤즈데일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이라는 생각을 감히 품지 못하고 — 사실, 그 동기에 대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 청교도 가치관에 걸맞는 이유를 찾아낸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여기가 내 죄의 현장이므로 여기가 현세에서 내가 처벌받는 현장이어야 한다. 그래서, 아마도, 내 일상의 치욕이 결국은 내 영혼을 정화할 것이고 내가 잃은 것과는 또 다른 순수를 이루어내리라. 순교의 결과로 인해 더 성스러워지리라. (57)

이것이 “반은 진실이고 반은 자기기만”(half a truth, and a half self-delusion, 57)이라는 화자의 언급도 있지만 이 대목을 진실로 ‘죄’를 참회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죄’의 의미를 청교도적으로 보는 이런 태도 뒤에는 그 규범들에 대한 예의 승리감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또, 가령 바느질의 즐거움조차 헤스터는 ‘죄’로 간주한다. 화자가 논평하다시피 “하찮은 일에게까지도 이렇듯 병적으로 도덕관념이 섞여드는 것은 진실하고 꾸준한 참회가 아니라 어떤 미심쩍고, 심각하게 잘못되었는지도 모를 무언가가 그녀 안에 있다는 징조”(59)일 수 있는 것이다.

어서 프론티어의 문학적 의미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소개로는 David Mogen, “Frontier Myth and American Gothic” *Genre XIV*. (1981, 가을) 329-46면 참조.

헤스터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앞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딘즈데일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악마적 성격'이다. 청교도적 신념이 주축이 되는 세계가 "철의 구조물"이나 "삶이 소진되는 곳"(85)이라는 표현들을 볼 때, 딘즈데일의 신념이 참된 것이 못됨은 여기저기서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신념에 매달려 헤스터와의 관계를 죄로 보고 그녀 역시 죄의식에 의지적으로 집착하는 한, 그녀는 어쩔 도리 없이 파괴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딘즈데일과의 사랑이 죄의식에 싸여 철저히 억압되면서, 그녀의 내재적 불만이 고스란히 딘즈데일에게로 향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이들의 관계는 막판에 딘즈데일의 고백과 죽음으로 아예 해결의 실마리를 놓쳐 버린다.

따지고 보면 청교도사회에 대한 저항에 있어서도 온전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보았듯 헤스터는 청교도사회의 종교적 이상이나 규범들을 시원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부분적 저항에 머물며 그녀 스스로가 저항의 과정에서 사회적 삶과의 단절을 어느 정도는 자초함으로써, 인간됨에 어떤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희생자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이런 부분적 저항이, 몇몇 평자들이 지적하듯, 체제에의 '순응'은 아니다.²⁴⁾ 그녀의 어떤 부분(그녀의 내면 내지 '개인성')은 끝내 그 사회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렇게 '천사'로 드러나는 순응적인 모습이 그녀의 속마음과는 거리가 있고 그녀가 아무리 청교도적 봉사로서 일관한다하더라도, 사회의 억압에 기인한 내재적 불만이 그 종교적 외피로는 가려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점이야말로 청교도사회에서 일어난 주요한 변화이며 헤스터의 바느질 행위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그녀가 자신의 '죄'를 치장하듯 필의 화려한 옷을 만드는 것에서는 삶의 가능성이 제약됨으로 인하여 아름다움의 생산에 더 몰두하고 탐닉하는 모습이 보인다. 또 한편으로는, 봉사적 차원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옷을 지어주나 정작 참뜻은 사상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헤스터의 도움을 받는 이들이 그녀에게 냉혹하고 잔인하게 구는 것이 어찌보면 이들이 못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점은 차이는 있지만 칠링워스나 딘즈데일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칠링워스의 과학연구에 대한 탐닉과 인류에 대한 봉사라는 외피, 딘즈데일의 자기해체과정으로의 함몰과 대중을 위한 설교에의 집착 등을 보면, 이 세 인물 모두에게서 안으로의 병적인 탐닉과 그것을 가리는 기만적이고 허위에 찬 이상이 혼합되어 있음이 눈에 띈다.

좀더 부연하자면, 청교도사회가 그 특유의 억압적 성격으로 인물들의 내부에 사회나 그들 자신에 대한 증오를 키우며 개인들을 이탈시키는 와중에, 각 개인의 삶의 중심이 그들과 그들 바깥 세계의 '관계'에서 멀어져 '개인의 고립적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구체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랑, 열정, 애정 등이 회미해지고 그 대신에 개인의 고립적이고 추상적인 사고의 영역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24) Baym, *The Scarlet Letter: A Reading*, 55-6면 참조. 베임은 헤스터가 얼마나 내적으로 청교도 세계관에 매여 있는지 딘즈데일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녀의 혁명적이고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만 초점을 둔다. 호손이 헤스터의 급진주의를 '애매성'이라는 '다윈주의 전략'을 통해 봉쇄함으로써 그녀를 호손 당대의 미국적 이데올로기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S. 베코비치(Bercovitch)의 견해 역시 이 점에는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듯하다. ([*The Office of The Scarlet Letter*(Baltimore: Johns Hopkins UP, 1991)] 이런 그의 견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고전문학을 중산층 헤게모니의 전략을 체험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도 연관된다. ("The Problem of Ideology in American Literary History", *Critical Inquiry* XII (1986, 여름) 645면.)

세상에 홀로 서서 — 이끌고 보호해야 할 어린 뿔을 데리고 있을 뿐 사회에는 아무런 의지도 하지 않고 홀로, 또한 자신의 처지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는 것 자체를 그녀가 경멸하기는 했으나 사실 그렇게 될 희망도 없이 홀로 — 그녀는 부쉬진 사술의 파편들을 팽개쳐버렸다. 세상의 법이 그녀의 정신에는 결코 법이 아니었다. 갓 해방된 인간의 지성이 지난 수세기동안의 경우보다도 더 활동적이고 넓은 영역을 차지한 시대였다. 칼을 든 사람들은 귀족과 왕을 타도했을 뿐이었다. 이들보다 더 대범한 사람들은 — 실제로가 아니라 그들의 가장 진정한 거처인 이론의 영역에서이기는 했지만 — 낡은 원칙들과 상당부분 연관된 낡은 편견의 체계 전체를 뒤집어 엎고 재배치했다. 헤스터 프린은 이런 정신을 들이켰다. (112)

이러한 '사색의 자유'는 특정지역에서만 발생한 현상이 아니고 당시 전유럽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것이었으나(112) 청교도사회에서는 새로운 신의 나라의 건설, 공사 영역의 합일, 정치와 종교의 합일을 지향했기에, 개인의 독자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색의 자유'는 그 무엇보다도 크게 좌악시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더욱 극단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말하자면 유럽 내에서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던 자유주의적 기운이 신대륙에서는 일시적이거나 — 지리적인 조건에도 힘입어 — 저지되었으나 오히려 그때문에 유럽의 경우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간 형태의 자유주의가 발생할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다.²⁵⁾ 딘즈데일의 고백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커다란 전환점의 역할을 한다. 고백을 통해 드러난 그의 가장 '사적인' 고민이 청교도사회에서 가장 '공적인' 것으로 해석됨으로써 영거추출한 형태로 개인과 사회의 합일을 보여주는데, 이는 달리보면 개인영역과 사회영역의 결합이 깨어짐을 그야말로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기도 하다. 이제 개인은 '공적'으로 표현하지만 앓는다면 거의 무제한으로 사색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들이 속한 청교도사회의 억압적 분위기는, 미국초기 청교도들이 내세운 자유가 중세의 온갖 속박과의 싸움 속에서 얻어낸 것이 아니고 이주를 통해 얻어진 사실에 기인하며 인간욕구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축적적 전통들이 억압되는 것도 이런 분위기에서이다. 이렇듯 내세운 가치와 현실이 괴리된 상태에서 현실을 초탈, 초월하여 그 가치를 이상화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경향이 딘즈데일과 헤스터의 관계에서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서 작가가 주목하는 것은 개인이 자기가 처한 삶에서 부당한 강제를 이겨나가려는 타고난 본성으로서의 사회성이며 이의 실현이 청교도 사회에서 제약된 결과가 헤스터의 '사색의 자유'이며, 관념성의 강화라는 점이다. 공동체와의 긴밀한 유대를 상실한 상태에서 개인의 고립적인 자유의 확대가 지니는 부정적인 양상은 칠링워스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칠링워스

그 기괴한 특징으로 인해 칠링워스를 '미친' 과학자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우선 작가자신도 그가 중세 연금술의 신비주의를 거쳐 신대륙 인디언의 의술, 게다가 그 당시의 과학의 동향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함으로써(88) 어디까지나 초기 청교도사회의 역사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근대과학자로서의 면모에 주목한다. 또 그는 청교도 목사인 딘즈데일이 공통점을 느낄 만큼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이기도 한데 청교도사회에 칠링워

25)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1848: New York: Harper Perennial, 1988), Vol. 2의 2부 1-5장 참조, 503~517.

스가 존재한다는 것, 특히 더군다나 딤즈데일과 같은 집에서 생활한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예컨대, 벨링햄 지사와 ‘마녀’인 그의 누이 히빈스(Hibbins)가 한 집에, 또 헤스터와 펄이 한 집에 산다는 사실이 각 쌍의 공통점을 암시하듯이, 비록 칠링워스가 과학자, 딤즈데일이 청교도목사로서 서로 판이하게 다를 뿐더러 하나는 가해자요 다른 하나는 피해자이지만, 두 인물 사이의 의미깊은 공통점을 시사한다. 청교도사회가, ‘자유’와 ‘민주’라는 이상을 내세웠으면서도 신의 이름 아래 오히려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억압하는 것도 칠링워스의 반생명주의와 통하는 점이다. 따라서 칠링워스의 반생명주의적 경향이 한결을 더 나아가는 계기가 바로 청교도사회에서 마련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헤스터의 ‘사랑죄’로 낡은 가부장적인 권위마저 부정당한 오쟁이진 남편이 된 칠링워스는 그녀의 죄를 계기로 복수의 화신이 된다. 그러나 그녀의 죄와는 별도로 그의 변화는 어느정도 예정된 것이기도 하다. 지식의 증대를 주목적으로 삼았으며 인류의 복지향상에도 충실하고자(118) 한 것이 그의 이상이지만 자연과학적 연구작업이 실제로는 칠링워스 개인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억누르고 구체적인 인간관계의 맥을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이점을 화자도 지적하고 있다.

인체연구를 거듭하다가, 점점 더 고차원적이고 미묘한 그들(의사들)의 능력이 물질화하고 자체내에 생명의 모든 것을 포괄할 정도의 기술을 말아넣고 있는 듯한 그 경이로운 기계(인체구조)의 복잡성에 빠져 존재에 관한 정신적인 견해는 놓치고 만 듯하다.(82)

칠링워스가 딤즈데일의 가슴속을 파헤치는 것은 이러한 반생명주의의 결과이며 피할 수 없는 “필연성”(89)의 과정인 것이다.

한편, 인간의 생명이나 본성까지도 연구대상으로 삼아 조종하려는 의지나 집착은 당하는 사람 못지않게 칠링워스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처음에 그의 표정은 고요하고 명상에 잠긴 듯 했으며 학자다웠다. 지금은 예전에는 안 보이던 무언인가 추하고 사악한 것이 그의 얼굴에 있었으며 그것은 사람들이 그를 자주 보면 볼수록 그만큼 더 분명히 눈에 띄게 되었다.(88)

그런데 이 변화를 알아채는 것은 정작 당하고 있는 딤즈데일이 아니라 그 보다 ‘못한’ 보통사람들이다. 앞서서도 이 청교도사회의 지도적 인사일수록 그 이상주의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딤즈데일과 마을의 보통사람들과의 이러한 대조는 헤스터의 헌신적인 봉사에서 거뒀던 이상주의의 냄새를 맡고 냉담한 반응을 보인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과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점이다.

교육받지 못한 대중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려고 할 때, 그들이 기만을 당하기란 무척 쉬운 일이다. 하지만 흔히 그렇듯이 그 커다랗고 따뜻한 가슴의 직관에 바탕해 판단을 내릴 때 이렇게 얻어진 결론들은 종종 너무나 깊고 정확해서 초자연적으로 드러난 진실들의 특성까지도 띠는 것이다.(88)

칠링워스와 관련한 이런 대목은, 『주홍글자』가 청교도사회의 보통사람들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그들의 장점을 놓치지 않고 기록한 부분이기도 하며, 이로써 몇몇 개인들의 고뇌에 찬 드라마가 그 사회의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분명히 가능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칠링워스도 그 나름의 미덕이 없지는 않았다. 헤스터의 ‘죄’ 이전에 품고 있었던 인

류에의 봉사라는 그의 이상이 한낱 거짓에 불과하다고 단정짓는 것도 부당한 점이 없지 않으며 그가 학자로서의 길을 걸으며 영국에서 유럽, 다시 신대륙으로 자리를 옮겨 온 것도 당대의 진보적인 사상 또는 정치적 흐름과 무관치 않았는데 의사의 신분으로서는 더욱 드문 일이기도 했던 것이다. 딘즈데일이 껌데기뿐인 신념에 매달려 자학적인 정신주의의 길에 들어서는데 대신 헤스터와의 사랑까지도 넉넉히 포용할 정도의 삶으로 나아갔더라면 칠링워스에게도 다른 종류의 삶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선은 그 자신이 그럴만한 인물은 못되었고 그가 처한 상황에서도 힘을 얻지 못한 채, 후에 딘즈데일이라는 대상을 잃고 나서 허무한 죽음을 맞이한다.

필

앞의 과정들을 끝까지 살아남은 헤스터를 통해 증언토록 하는 데에서도 호손의 예술가로서의 성취가 드러나지만 이후 세대인 필의 모습까지 제시함으로써 해서 『주홍글자』는 더 커다란 역사적 안목을 지닌다. 헤스터와 그녀가 저지른 ‘죄’의 상징인 필의 비교는 여러 점에서 작품에 묘미를 더해준다. 청교도사회와 딘즈데일과의 관계에서 헤스터의 저항이 ‘부분부정’에 그친 반면 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보냈단다!”라는 헤스터의 주저하는 말에 “그는 나를 보내지 않았어요,” “내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없어요.”(68)라고 대답하는 것에서도 보듯, 헤스터의 ‘부분부정’에서 더 나아간 듯하다. 필 또래의 어린아이들이 예배보러 가는 놀이에서부터 퀘이커교도들을 응징하고 인디언들과의 모의전투에서 머리가죽을 벗기고, 마녀흉내로 서로 놀래키는 등의 놀이를 한다는 대목(65)은 그러한 어른들의 세계 이외에는 달리 보고 들은 것이 없는 어린이들의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적절한 묘사로서 청교도 사회의 뒤편이에 대한 호손의 통찰력이 여지없이 잘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것은 필이 이런 아이들로부터 겪는 소외 때문에 더 내성적이며 유약해지기는 커녕 도리어 이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무서운’ 아이가 된다는 사실이다.

접없는 아이 필은 인상을 쓰고, 발을 구르며, 여러 위협적인 몸짓으로 그 작은 손을 흔들더니, 갑자기 적들의 무리(다른 청교도 아이들)를 향해 돌진해서 그들 모두를 달아나게 했다. 그들을 맹렬히 뒤쫓을 때, 그녀는 마치 성장하는 세대의 죄를 벌하는 임무를 띤 유아역병 — 주홍열병[성홍열] 또는 아직은 어린 그런 심판의 천사 — 과도 같았다.(71)

또한 필은 매사에 세상의 이목이 두려운 헤스터의 염려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녀는, 예컨대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딘즈데일과 ‘A’자를 댄 헤스터 모두에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로 보지 않으려는 숲속의 장면에서처럼, 부모를 난감하게 하고 그들의 과거를 더욱 생각나게 한다. 어찌보면 정말 아이답기도 한 그녀의 얽매임없는 행동은 얽매여 있는 부모들에게는 고통이 된다.

이러한 필의 특징은 우선은 그녀가 부모들이 청교도규범을 부순 결과로 태어났고 다른 청교도 가정과 달리 지나친 엄격함이 없는 성장환경, 헤스터의 자격지심에 기인한 방임, 또래집단에서의 완전한 소외 등을 겪으며 자랐기 때문에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 독특한 탄생배경과 성장배경으로해서 필 나름의 활기와 생동감은, 그녀를 있는대로 보아주지 않고 오로지 ‘죄’를 읽어낼 어떤 살아있는 문자로만 여기는 사람들과 편협한 규범체계에 대한 대항의식으로 발전한다. 그리하여 ‘A’자를 달고 사는 헤스터가 마치 ‘A’자를 수놓듯 꾸민 필은 더 순수한

‘A’, 아예 살아있는 ‘A’인 듯 느껴지기도 한다. 이렇게 헤스터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듯한 펠의 ‘악마적 특성’은 기존의 청교도규범 내에서 빛어지는 온갖 거짓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 사회가 맺은 필연적인 열매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거짓 이상에서 놓여나기의 힘겨움

이 소설의 부제가 「하나의 로맨스」라는 데서도 볼 수 있듯, 작가는 신대륙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앞의 과정들이 작품표면에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작품의 외양 또는 표면적 의미와 그 심층적 의미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호손은, 예컨대 숲속의 장면에서 그간 청교도사회에 의해 억압되어온 헤스터의 인간다운 미덕이(더불어 풍부한 여성성이) 회복되고 그녀와 딘즈데일 사이에 자유를 향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시하고자 했으나, 이와는 달리 작품은 바로 이 대목에서 한 청교도 목사가 얼마나 철저히 파괴되는가를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작가는 헤스터에게 ‘A’자를 붙인 청교도사회에 대한 비판이 그녀의 인간답고 여성다운 미덕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A’자가 떨어져나가는 곳에서 절정에 이르도록 의도했겠지만 오히려 청교도사회에 대한 비판이 절정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에 상징 ‘A’는 헤스터와 가장 빛나게 결합한 셈이다.

또한 딘즈데일이 헤스터와 펠을 불러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마지막 교수대 장면은, 본론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딘즈데일의 최후의 반격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며 헤스터가 단지 그녀 혼자만이 타락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순결한’ 청교도목사까지 타락시킨 ‘악마’로 공포되는 순간이다. 그런데도 작가는 마치 ‘화해의 대단원’을 보여주려는 듯, “펠이 딘즈데일에게 입맞춤으로써 마법이 깨어졌으며”, “[펠의] 눈물은 그 아이가 인간의 기쁨과 슬픔 속에서 자라날 것이며 세상과 영원히 투쟁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한 여자가 되겠다는 맹세였다”(173)고 말한다. 26) 한마디로 이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대단원은 ‘로맨스’라는 부제가 걸맞는 걸이야기일 뿐이다. 27)

이렇게 된 데는 우선 그 파괴의 과정이 말 그대로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며 낡은 이상을 고집하는 한 자신들의 관계가 파괴적으로 될 수밖에 없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그 과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야말로 사력을 다하기 때문이다. 헤스터와 딘즈데일의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이 결말부분의 도망제의를 둘러싼 상황을 통해 언뜻 제시되기도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도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설 때에 한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더 나은 삶과 신념의 기반이 없는 그저 ‘도망’의 차원에 그친 것이었다.

26) 한기옥, 158면 참조. 그는 호손의 경우 “사실주의와 설화적 상상력이 결합된 형태임은 분명하지만 이 작품의 표리부동한 특성으로 인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종류의 결합인 것 같지는 않다”고 결론 짓고 있다.

27) 이 점과 관련, Colacurcio는 자신이 편집한 *New Essays on The Scarlet Letter*의 서론에서, Lawrence의 “표리부동성(duplicity)” 주장의 영향으로 이제는 작품의 일관성을 믿는 ‘순진한’ 비평가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이다. 사실, “기만의 책략”(art of deception), ‘이야기’와 ‘이야기꾼’(narrator) 간의 불일치, 로맨스양식의 기반으로서의 어떤 근본적인 불연속성, [A를 포함한] 기호들의 불확정성 등의 여러 새로운 주장들은 Lawrence의 주장과 관련되나, 후자와는 달리 이들 주장들은 작품의 깊은 의미를 찾는 데로 까지 전개되지는 않는다.

또한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거짓 치장이 이렇듯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은 그 사회와 개인들의 문제가 그만큼 뿌리깊음을 드러내는 한편, 작가 역시 이들의 관계가 파괴적으로 될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이들이 고집하는 것과 같은 이상주의적 경향에서 속 시원히 벗어나 있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작가가 작중인물들처럼 청교도사회의 이상에 똑같이 몰입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선이 강하지만 유럽을 떠나오면서 형성·미국의 독립을 통해 더욱 강화된 어떤 이상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그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D.H. Lawrence는 호손을 포함한 미국의 고전작가들이, 특정시기나 특정지역의 이데올로기보다는 더 포괄적인 것으로 지금까지의 서구역사에서 두루 영향을 행사해 왔고 신대륙에서는 그 특유의 이상주의적 경향으로 말미암아 한층 더 고집스럽게 되어버린 '낡은 도덕(old morality)'에 작가들이 얽매어 있다고 말한다. 즉, "인간의 영혼이 육체보다 더 '우월한' 그리고 '위에 있는' 어떤 것이라는 낡은 도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열정을 다해 파괴하려고 나선 바로 그 도덕에 정신적으로는 빈틈없이 충실하다. 여기에서 그들의 치명적인 결함인 표리부동성(duplicity)이 나오며 미국의 가장 완벽한 예술작품인 『주홍글자』에서 가장 치명적이다.²⁸⁾

이는 작품의 형식적인 특성과 내용 모두에 걸쳐 그 성취와 문제점을 동시에 포함하는 매우 적절한 지적이긴 한데 이 "표리부동성"이란 용어를 이해함에 있어서 어느정도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이 말 자체가 부정성을 너무 뚜렷하게 부각시키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중립적인 의미에서 겉이야기와 속이야기의 차이를 지칭하는 의미는 약화되기 쉽다. 더군다나 로렌스가 다소는 일반적으로 대개 작가 개인이 하는 이야기는 겉일뿐이요 거짓이기가 쉽고 어디까지나 작품이 하는 속이야기가 진짜라고 말하는 것의 연장에서 언급한 "표리부동성"은 특정 작가나 작품에 대한 비난 이라기보다는 예술작품일반론에도 해당하는 듯하다. 또한 호손의 경우에도 백미는 바로 작품의 속이야기에 있고 이 속이야기에 깊은 진실이 담겨있다는 지적을 상기하면 그 말은 작품에 대한 높은 평가를 전제한 것이며 각도를 달리하면 작품을 마주해 겉에만 얽매이지 말고 작품의 진면목에 도달하라는 의미에서 독자에 대한 주문을 곁하기도 한다. 물론 로렌스가 미국문학, 특히 호손의 작품에 "표리부동성"이란 말을 썼을 때는 겉과 속이 따로 놓지 않는 문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작가의 이야기와 작품의 진실이 다소간 차이가 날 수 있는 예술작품 일반의 경우에서보다도 미국문학의 경우에 그 둘 간에 더 심각한 어떤 괴리가 유난히 드러난다는 것이므로 그만큼 비판이 되기도 한다.

로렌스의 논의에서도 그렇지만 이 모든 비판들 뒤에도 『주홍글자』는 그 빛을 잃지 않는다. 『주홍글자』의 성취는 앞에서 「세판」을 논하는 부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당대 삶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문제의식이 처음부터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며 또한 그런 비판의식에도 불구하고 서구 역사의 연장이기도 하면서 또 다르기도 한 미국의 독특한 처지에서 기인한 작가의 의식적인 제약까지도 뛰어넘는 예술언어의 창조성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더 나아가 작품 안팎간의 괴리에 기인한 긴장마저도 작가가 몸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지난한 과제 — 내세운 이상과 실질적 삶간의 괴리, 그야말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에서 안팎간의 괴리를 극복해야 하는 — 를 신대륙의 역사를 통해 물려받았는가를 환기시킨다.²⁹⁾ 호손 당대에 초절주의자들이

28) Lawrence, 180면.

29) 김명환, 『Henry James의 *The Portrait of a Lady*와 *The Bostonians* 연구』(서울대 박사학위

유럽과의 '단절' 과 신대륙의 '이상' 을 노래할 때, 『주홍글자』가 신대륙 초기역사에서 그 '이상' 의 허위를 부수며 미국의 자기망각을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 의미심장하다.